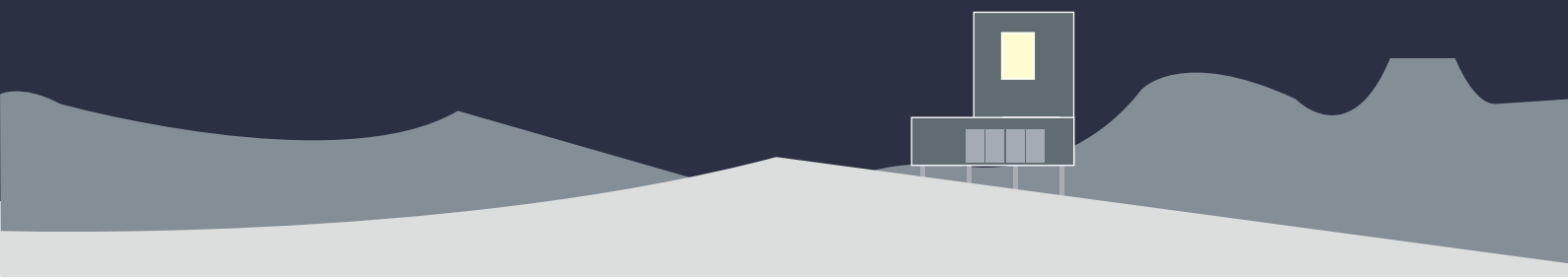
VALUE INVEST KOREA

2017년 07월 둘째주



딜라이트

와이랩

헤드플레이

선재하이테크

VENTURE STORY

'제10회 국제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 (KORECA)' 참가

■ 딜라이트 보청기, '제10회 국제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 (KORECA)' 참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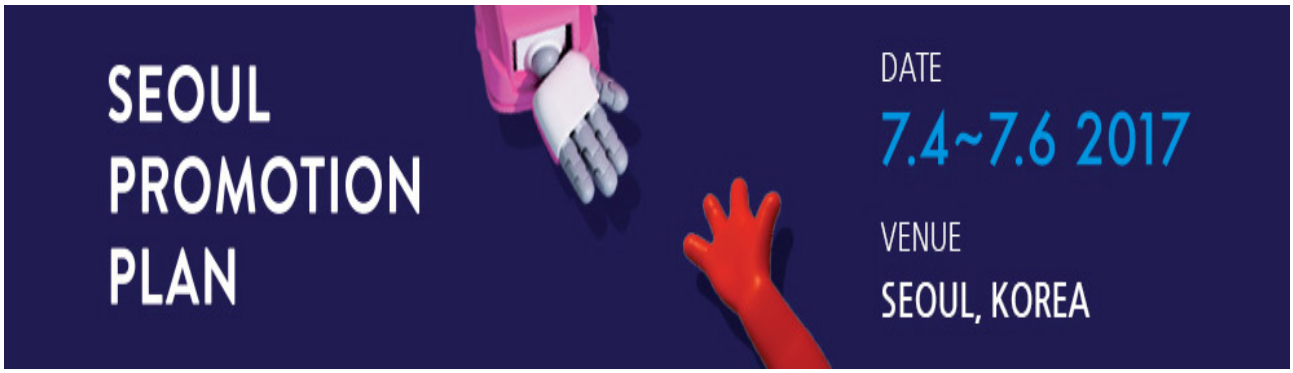
- 국내 보청기 전문기업 '딜라이트보청기'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'제10회 국제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(KORECA: Korea Rehabilitation &Senior Care)'에 참가
- 부산시가 주최하는 제10회 국제 복지 재활 시니어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을 받은 국제전시회로 고령친화산업 관련 주요 기업 및 기관 총 230개사가 참여
- 딜라이트보청기는 최근 보청기 역수출이라는 발상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략에 집중
- 보청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회 기간 동안 전자식습기제거기, 배터리 할인 혜택도 제공

※ 제 10회 국제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 KORECA2017

- WHO(세계보건기구)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인증한 부산에서 2017년 복지, 재활, 시니어 전시회를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플랫폼 경험
-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기회제공
-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를 통한 전문가 및 관계자 방문
- 실질 구매층 대상 다양하고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

참고 : KNS뉴스, KORECA2017 HOMEPAGE

양수도



웹툰 '부활남', SPP2017 웹툰어워드 대상 수상

웹툰 '부활남'이 SPP2017에서 진행된 'SPP 웹툰 어워드'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.

■ 웹툰 '부활남'
- 제작 : 와이랩
- 그림/글 : 김재한/채용택
- 2016년 6월 연재시작
- 수퍼스트링 세계관
- 줄거리 :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는 백수 '석환'과 거대 폭력조직과 싸움을 그린 액션웹툰

※ SPP(Seoul Promotion Plan)
- 아시아 최대의 웹툰, 애니메이션 및 관련 콘텐츠 마켓
- 운영 : 서울특별시, 서울산업진흥원(SBA)
- 업계 종사자들에게 콘텐츠 판매 및 구매, 공동제작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
- 전세계 유망한 애니메이션, 웹툰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
- 글로벌 프로모션 및 투자유치 행사 진행

참고 : 웹툰인사이트, SPP2017 HOMEPAGE

펀치라인, 국내 대표 명작 웹툰의 웹소설화

■ '외발로 산다' 웹소설로 만난다, 펀치라인 독점 연재 시작

- 차세대 웹소설 플랫폼 펀치라인(대표 김태관)에서 국내 대표 웹툰 작가 '네스티캣' 고영훈의 명작 웹툰 '외발로 산다'가 지난 6월 30일부터 웹소설로 연재 시작. 매주 월, 금, 일요일 3차례 독점 연재중
- 고영훈 작가는 '네스티캣'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, '트레이스', '보고 듣고 사랑해', 등 장르를 넘나드는 탁월한 이야기로 발표하는 작품마다 메가 히트를 기록한 1세대 웹툰 대표 작가
- 웹툰 '외발로 산다'는 고영훈 작가의 대표작으로 한국형 무협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연재 당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작품
- 고영훈 작가는 '외발로 산다'의 원작자로 소설화를 진두지휘하며 글작가인 묘은 작가와 함께 기획에 참여
- 웹툰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인공들의 세심한 심리 묘사와 배경 설명이 더해져 웹소설 '외발로 산다'만의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할 예정

참고 : 독서신문

2017 상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선정

■ 2017 상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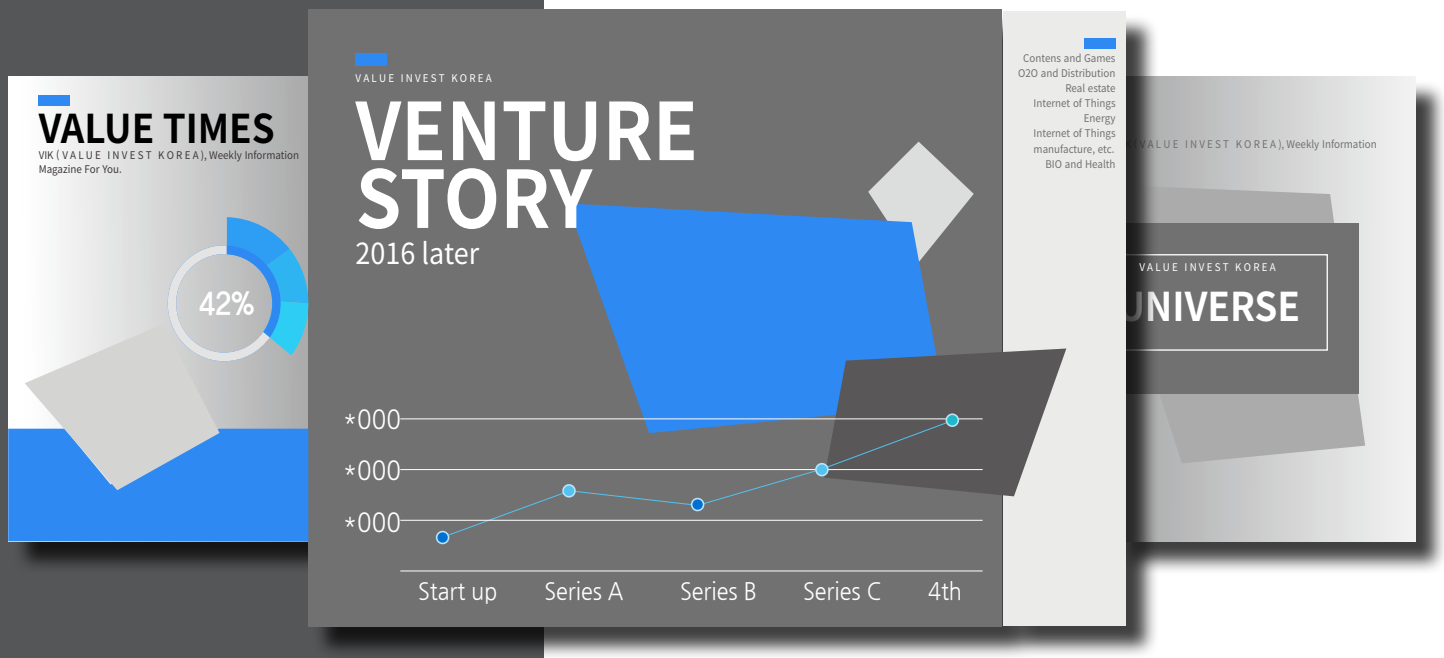
-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은 한국일보가 한국특허정보원, 한국지식재산보호원,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국내 우수특허기술을 장려하고, 신지식 강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·시행
- 광조사식 이오나이저, 전압인가식 이오나이저를 비롯해 정전압 모니터링 시스템, 정전압 측정기, 표면저항 측정기 등 정전기 제거장치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
- 2000년 회사를 설립한 이래 정전기 한 분야에만 집중해온 선재하이테크는 정전기 전문 통합연구소를 설립하고 세계 유수의 정전기 전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
- FPD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의료용 장비, 특수 필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장치를 개발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
- 반도체산업의 70% 이상, LCD산업의 90% 이상이 선재하이테크의 정전기 방지 설비를 채택
  → 삼성전자, 삼성SDI, 삼성 SMD, LG전자,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동우화인켐, 하이닉스 등 고객사로부터 그 기술력을 인정
- 현재 방폭형 정전기 제거장치, 스팟형 정전기 제거장치, 고전압 엑스레이 튜브 등 신제품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, 110여 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

참고 : 한국일보

VALUE INVEST KOREA

VENTURE STORY

제5회 2017.07.12



- `4차 산업혁명의 심장` 실리콘밸리가 던진 7대 메시지
- 당국 무관심에 빛 못 보는 '벤처 PEF'

4차 산업혁명

인공지능, 로봇기술,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.

▷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
▷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
▷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

이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(AI)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,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다.

`4차 산업혁명의 심장`

실리콘밸리가 던진 7대 메시지

- **10년 후 초지능 신인류 탄생**
 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구글 이사는 현재 기술의 진보가 기하급수적(exponential)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두뇌의 신피질을 클라우드에 연결하고, 나노봇(나노 크기의 로봇)이 모세혈관을 타고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 완벽한 가상현실 몰입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
- **AI 기반 생존전략 짜야**
  인공지능(AI)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경영의 핵심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.
 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
- **실패하면 보상하라**
  실리콘밸리에서 실패는 경험일 뿐.
  아스트로 텔러 구글X 대표는 아예 “실패하면 보상하라”는 아이디어를 제시
- **데이터 골드러시 시대**
  (사물인터넷 등으로) 세상이 더욱 연결되면 데이터가 지금보다 더욱 가파른 속도로 생성되므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들이 여기에 활용되면서 지금 새로운 데이터 골드러시가 진행될 것
- **온·오프라인을 연결에 기회**
  제레미야 스톤 GE디지털 부사장은 “사이버와 물리적 세상의 연결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. 이것을 연결해야 (비즈니스) 기회가 생긴다”고 언급
- **정부-민간 협력이 성공열쇠**
  4차 산업혁명 성공 조건으로 ‘정부와 민간의 협력’이 중요하므로 유연한 정책이 필요
- **인재싸움 전략 세워야**
  4차 산업혁명에서 향후 10년간 인재 유치 전략은 매우 중요하며 실리콘밸리에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장기적인 인재유치 전략

PEF

Private Equity Fund.
사모투자펀드.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펀드이다.
PEF는 전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뒤, '바이아웃(Buy Out)'의 투자 전략을 취한다.
미국, 유럽 등 선진국에서 1990년대 이후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는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에 활용해 선순환을 불러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.

당국 무관심에 빛 못 보는 '벤처 PEF'

VENTURE PEF

- **최근 몇 년새 세계 경제의 화두 중 하나는 스타트업(창업)**
  미국·중국·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스타트업이 국가 경쟁력 제고의 동력이라고 보고 이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이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트렌드

-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관련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벤처·창업 전문 PEF 제도를 신설하였으나, 제도 시행 거의 반년 만에 1호 벤처·창업 전문 PEF가 탄생했을 정도로 시장의 반응은 냉랭

- **창업·벤처전문 1호 사모펀드 '에스티리더스PE' 출범**
 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채널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해온 창업·벤처전문 사모투자펀드(PEF) 제도를 활용한 1호 펀드가 탄생
- 창업·벤처전문 PEF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펀드로 창업 및 벤처 기업에 50%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, 특히 기존 경영참여형 PEF와는 달리 주식이 아닌 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창업·벤처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신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
- 당초 예상했던 증권사의 참여는 아직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이미 신기술금융업 등 다른 방식을 통해 벤처기업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
- 당국은 벤처·창업 전문 PEF가 '사후 보고' 형식이라는 이유로 거의 1년을 준비해 밖에 내놓고도 방치하고 여기에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아래에서 이 제도가 사실상 사장(死藏)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
- 지금의 산업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므로 비전있는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에 적재적소에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